‘몰카’ 피해자 60% 지인에게 당했다

유포 피해자 1명 당 최대 2975건 유포 피해 발생
유포·협박·괴롭힘 등 대부분 중복 피해 겪어
지원센터 전문변호사 채용 등 지원센터 기능 강화

자신도 모르게 신체가 촬영·유포돼 고통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60% 이상이 배우자, 연인,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몰래카메라(몰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379명의 피해자가 5687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3만3921건의 피해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 절반 이상인 1301명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 2267건 ▲불법촬영 1699건 ▲유포협박 803건 ▲사진합성 153건 ▲사이버 괴롭힘 251건 ▲몸캠 및 해킹 31건 ▲기타 483건 등이었다.

특히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불법촬영 1699건 중 65.2%는 전 배우자나 연인,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는 여성이 2108명으로 88.6%였으며 남성도 271명 있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2~30대가 25.9%로 가장 많았고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건수는 총 3만3921건이었다. 지원 유형으로는 삭제 지원이 2만8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 지원 4787건, 수사·법률지원 203건, 의료 지원 52건 등이었다.

삭제지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영상 삭제지원이 1만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 8239건, 검색결과 삭제 6705건, P2P 2158건, 웹하드 317건 등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원센터 인력을 10명 확충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 아울러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의 실효적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숙진 차관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올들어 산불 30건 발생
최근 10년來 2.6배↑

행정안전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산불이 30건 발생했다. 이 불로 28.76ha(헥타르·1ha=1만㎡)가 소실됐다.

산불 건수는 최근 10년(2009~2018년)간 평균 11.4건보다 2.6배 많다. 소실 면적도 10년 평균치 17.54ha보다 1.6배 늘었다.

올들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이 각 5건씩(16.7%)으로 가장 많았다. 산불 3건 중 1건이 입산자 실수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났다는 얘기다.

건축물 화재 3건, 화목보일러·연탄재 화재 3건, 성묘객 실화 2건, 기도용촛불에 의한 불 1건 등도 있었다.

특히 올해 경북 지역에서의 산불이 총 11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 건수의 4.2배에 이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한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로 나타나 매우 건조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을 태우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성된 ‘태백산 눈축제’ 눈조각 17일 태백산 눈축제가 열릴 예정인 강원 태백시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에 축제의 백미인 눈조각들이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배출·불법소각 사업장 무더기 적발…265건 고발

법을 어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실시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농어촌 불법소각 현장 8998곳 등 2만3601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건의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과태료 부과 건의 53%인 742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사업장별로 보면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 적발 건수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불법소각은 지난해 하반기 4223건 적발된 이후 분기 점검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소각 적발 건수의 92%에 해당하는 8274건은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724건(8%)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14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의 79%(571건)은 농어촌 지역 생활 폐기물을 불법소각 하다 들통났고, 21%(153건)는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경우였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은 594건(5.8%) 적발돼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의 39건보다 15.2배 늘었는데, 점검 대상을 자동차 정비소·아스콘 제조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뉴시스

일본 규슈 가고시마 화산섬 폭발 분화

일본 남서부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현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에 있는 신다케(新岳) 화산이 17일 폭발 분화해 연기를 500m까지 뿜어 올렸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신다케 화산이 이날 오전 9시19분께 분화했으며 화산재와 화산가스로 이뤄진 화쇄류(火碎流)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쇄류는 아직 거주지역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분화경계 3(입산규제)을 발령했다.

기상청은 계속 화구 반경 2km 안에서는 분화 시 분석이나 화쇄류가 날아오거나 흘러오는 것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내렸다.

크기가 큰 분석은 화구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화쇄류를 남서와 북서쪽으로 1.5km까지 유출했다.

야쿠시마초(屋久島町) 당국은 이번 신다케 분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야쿠시마초는 방재무선을 통해 주민에 신다케 화구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피난소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美 20대 남 ‘백악관 공격’ 계획혐의로 체포

조지아주의 한 20대 남성이 백악관 공격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16일(현지시간) 체포되었다고 조지아주 당국이 발표했다.

이 사건에 관한 FBI요원의 진술기록에 따르면 조지아주 커밍에 거주하는 하세르 자말 테헤브(21)는 자기 차를 팔아서 무기를 구입한 뒤에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방화 또는 폭파에 의해 미국 정부의 공공건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타헤브가 수제 폭발물과 대전차 로켓포를 사용해서 공격을 할 계획이었으며 공격중 자신은 자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현지 경찰이 지난 3월 지역 주민에게서 제보를 받아 FBI에 연락하면서 사전 검거가 이뤄진 것으로 FBI 문서에 기록되었다.

페루 수도 리마, 5일째 하수 범람 악취 비상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최대의 인구 밀집지역의 대형 하수관이 막히며서 지난 13일 부터 유출되어 거리를 덮은 오페수의 ‘끔찍한 악취’로 주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수 천명의 인부들과 경찰, 군인들이 리마시내 인구 10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산 후안 데 루리간초 구에 흘러 넘치는 악취와 싸우면서 거리에 넘치는 오수를 치우고 청소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이 구역 하수의 80%를 모아서 흘려보내는 거대한 하수 파이프가 막혔기 때문이다.

이 번 사고에는 정치적 이유도 들어있다. 이 곳 하수관은 각국 정부에 대한 뇌물제공 스캔들로 유명한 브라질의 건설사 오데브레히트가 6년전에 교체공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중남미 전 지역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와 연루되어있고, 페루도 그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더러운 하수의 홍수는 일요일인 13일부터 막힌 하수관이 넘쳐나면서 시작되었고 시내 전역의 8헥타르 이상의 지역을 뒤덮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깊이가 2m나 되는 곳도 있다.

시리아 북부서 IS 테러로 미군 등 16명 사망

시리아 주둔 미군이 중점적으로 배치돼 있는 시리아 북부 도시 만비즈에서 16일(현지시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자폭 공격으로 미군 4명을 포함해 16명이 숨졌다.

CNN과 AP통신 등은 이날 시리아 북부 만비즈의 한 레스토랑 부근에서 폭탄 공격이 벌어져 미군과 쿠르드민병대원, 민간인 등 1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상자는 미군 3명을 포함해 8명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단’은 사망자 중 민간인이 9명이라고 밝혔다.

폭발물 공격 직후 IS는 선전매체 아마크를 통해 폭탄조끼를 착용한 자살공격자가 국제동맹군을 공격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의 배후임을 주장했다.

만비즈는 미군과 협력해온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가 시리아 내전 기간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난 2016년에 장악한 곳이다. YPG를 테러 조직으로 여기고 있는 터키는 이곳을 공격 타깃으로 점찍어두고 있다.